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개최

입당 감사 10대행사: 4.26(목) 11:00-14:30

우리교회는 입당감사 10대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교회에 지원하시는 농어촌 100교회의 지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환경중의 목회사역을 격려하며 농어촌의 복음확장의 계기를 부여하게 된다.

4월26일(목) 11:00-14:30까지 갖게될 이번 행사에서 농어촌 교회의 지원사항 및 농어촌 목회사역 실적발표, 결연자와의 만남의 시간, 농어촌 교회를 위한 기도, 나눔의 시간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게 된다.

제9학기 성경대학 및 주부대학 개강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교육하는 것을 미래의 생명으로 알고 제9학기 성경대학과 주부대학을 개강한다. 제9학기 성경대학은 4월9일(월) 개강하여 글로세서, 계시록, 음악교실, 지도자반(L.T.C), 전도학교, 교사양성반 등의 6개 강좌를 개설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주부대학은 우리교회의 기혼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4월 10일(화) 10시 30분에 이종운 목사의 '크리스찬의 가정윤리'란 제목의 강의를 시작으로 6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 10회에 걸쳐 유익한 내용의 강의를 준비하였다.

제9학기 성경대학 및 주부대학의 수강료는 10,000원으로 동일하며 금주 주보 간지로 삽입된 '강좌내용 및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제 9학기 서울 성경대학

강좌	요일	시간	강사	강의실
글로벌세	월	오전 10시	지혜영 전도사	602호
계시록II	화	오전 6시	정윤돈 목사	602호
음악교실	화	오후 7시 30분	허희철집사, 이연숙권사	602호
지도자반(L.T.C)	목	오전 6시	고경진 목사	602호
전도학교	목	10시-12시	이규경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금	오후 7시30분	이성득 목사	602호

주부 대학 - 강좌 예정표

순서	일자	강의 내용	강사
1	4/10	크리스찬의 가정 윤리	이중운 박사
2	4/17	신 앙 간 증	정영숙 집사(탈렌트)
3	4/24	유대인의 자녀 교육	최창모 교수(건대)
4	5/8	사회활동을 통한 여성의 자기개발	이정자 교수 (서울여대 총장)
5	5/15	가족건강과 의학 상식	허인선 집사 (신경희과 원장)
6	5/22	야외 수련회	
7	5/29	건강한 자녀교육과 부부생활	김정관 목사 (기독교상담연구원장)
8	6/5	사회변동과 여성의 역할	박영신 교수 (연세대)
9	6/12	여성의 여가선용과 취미 생활	강교자 (YWCA)
10	6/19	신앙생활과 직업	강석우 집사(탈렌트)

지난주 이모저모



나눔의 집 개장- 나에게 필요없는 것이 남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



고등부 십자군 발대식-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서울교회 10년사 편찬위원회- 우리 교회사를 정리하며

상담부 운영 시작한다.

우리 교회는 오는 4월4일(수) 오후1시에 상담실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상담실은 본 교회당 3층의 기도실로 매주일 마다 이용하게된다. 우리교회 성도는 누구라도 평소에 갖고있던 생활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의문사항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실 이용시간은 매주일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사전예약속을 하기 바란다.

법률 상담은 304호, 세무상담 305호, 병무상담 306호, 의료상담 307호, 교육상담 308호, 가정상담 309호, 결혼 상담은 310호이다.

이번주의 말씀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개역개정판 시편 22:19-20)

But you, O Lord, be not far off; O my Strength, come quickly to help me. Deliver my life from the sword, my precious life from the power of the dogs. (Ps 22:19-20)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14 - 21)



이중운 목사

본문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소망이 침체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 여호와와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사람들이 연락을 위해 댕가 갑자기 메데 파사의 습격을 받아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 해방을 위해 메데 파사의 군대를 보내어 연락하던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패하게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15절). 구속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계 16:5, 6:10, 3:7), 창조자이시므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시 121:1 - 2) 왕이시

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배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며 마지막 심판 날에 만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2. 이전 일은 기억도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18절).

애굽에서의 구속은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사 42:3)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소멸하기를 꺼져 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사 43:17)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물 속에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원수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큰 역사였지만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이보다 더 큰 역사로 일어날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은 기억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하십니다(18절). 바벨론에서의 구원이 보다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출애굽은 육적으로 놀라운 것이었으나 거기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우상숭배와 거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같은 구원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새 일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구원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구원만 생각하고 현재의 고통을 타개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타개하려면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광야 길에서는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므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①메마른 사막에 강물처럼 비참한 인생들에게 만족함과 유쾌함이 되고(19절)
②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승냥이와 타조같이 낮고 천한 이방인들과 미천한 유대인들이며(20절)
③이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21절).

3.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2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 여호와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입니다(7절).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여 주는 주 자신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낳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는,
①그를 찬미해야 하고
②그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하며(순종)
③그를 전파해야 합니다(전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18절)

지난 일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하고 사모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노스탈자는 미래를 향한 출발을 가로막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영화에 연연하는 행동은 현재의 조건을 타개할 야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가버린 예루살렘의 영화에 허황된 긍지를 고집하는 이들은 새 천지 바벨론 사람과 섞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자랑을 과감하게 묻어버려야 합니다. 나약한 노스탈자는 새 출발의 결단을 마비시키는 독소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겪은 수치와 절망 때문에 실의에 빠져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실패는 과거와 함께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함께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무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 기점은 현재의 조건보다 미래의 비전에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미래를 향한 전진의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은 항상 미래 소망에 의해 평가되고 그 표준에 의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온 편지 **싸왓디 크랍!**

이양동 선교사

싸왓디 크랍?!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서울교회 형제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이번 단기 선교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오늘 이런 만남을 갖게됨을 감사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세계최대라는 뱀을 동생과 잡아죽인 꿈을 꾸고 악몽인가 싶어 그대로 침상에서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순간 전화로 선교단 방문 소식을 듣고 이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선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번 선교단의 방문으로 주님의 권세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지역에 생명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초라하고 소외당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아직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정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깊은 산골짜기에 혹은 높은 산등성이에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며 화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낮은 공책에 가사를 적어가며 자기들의 모국어로 곡조가 없어도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순수한 모습은 정녕 이 세상 것이 아니지요! 오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세요!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해 주세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비롯한 많은 전도용품들이 필요하고 무교회 지역의 교회개척 지원과 예배당 건축, 전도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산악용 오토바이도 필요하고요, 산골짜기마다 돌아다니며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산족 전도단이 사용할 4륜 구동 차량도 필요하고요, 목회 훈련원과 선교센터의 운영 및 교육용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낮은 자를 찾아 오셨지만 우리는 늘 위대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를 배려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원망도 서러워 조차도 할 수 없는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포기해야 합니다. 길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만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 동행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 일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되지만 오직 여호와와 신에 감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동이 있는 자는 그 뜨거운 열정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락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아5:8)

70인 전도대 보고 - ④ 양경래 장로 (11교구)

나는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토요일은 즐거운 날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죄와 허물 투성이인 나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토요일은 전도의 날로 정해놓고 병원전도, 노방전도, 축회전도 생활을 한다. 이날은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고기 바구니(가방)에 태신자 수첩과 먹이로 순례자, 말씀태잎, 그리고 사탕 등을 넣고 병원으로 거리로 아파트 단지로 나선다. 나에게 제일 반가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가장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네"하고 시인할 때 기쁨으로 긴장되고 태신자 수첩에 이름과 기도제목을 적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여준다. 병상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여도 믿기를 거부하던 한 영혼이 어느 날 때가 되어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환희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보다 더 반갑고 감동적이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자.

새로왔어요 < 관참지에? >

이근홍, 황현숙 집사(1교구)



한 눈에 보기에야 야무진 일꾼처럼 보이는 한 부부를 만났다. 경상도 사투리가 지워지지 않은 두 분은 서울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며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로 1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진 못했어도 무조건 순종하고 최선의 봉사를 했더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작년 9월에 인천에서 삼성아파트로 이사온 후 걸어서 다닐만한 교회는 거의 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중, 서울교회 새가족이신 옆집 502호 교감선생님의 권유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등록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어떠신지요?
"등록 후 1주일만에 시아버님 상을 당하여 망설이던 중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얼굴도 모르는 저희들을 10년된 교인처럼 장로님, 교구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집사님, 다락방장님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오랜 시간 앉아 위로도 해주셔서 감사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서울교회에 빚진 자로 열심히 봉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 새가족부 수료가 다가오는데 어떤 봉사 부서를 생각중이신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집사는 재정부와 고등부 부장, 저는 유년부 교사를 했는데 서울교회에서는 같이 찬양대로 섬기고 싶다고 심방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사가 서울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고, 저는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틈을 내어 다락방 예배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 한 교회를 10년간 섬기다 옮기셨으니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서울교회 새가족부 교재와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다 알려드리고 왔어요. 관참지에?"

☞서울교회 정보를 빼내어 다른 교회에 누설(?)하고 오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최차순 집사(4교구)

해마다 이맘때면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말씀의 확신도 그리스도의 생명력도 없던 저에게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너무도 또렷하게 아침 햇살처럼 들려왔습니다.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찼던 허약한 믿음의 깊은 골짜기에 광명이 비추짐을 볼 수 있었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자 초목과 공중의 새들과 길옆의 돌들도 주님의 위대함을 송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매어있는 믿음의 나무는 줄기도 뻗지 못하고 잎도 푸르지 못하여 말라비틀어진 나무가 되어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증인된 삶도 온전한 감사의 생활도 하지 못함에 두려움이 어둡처럼 다가옵니다.

주님! 약한 자 앞에 강한 자로 비취지는 비겁함, 가식과 자고한 마음, 허영심, 가슴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죄악의 잔상들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과 명예 체면 때문에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여 제 갈 길을 가는 유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채워져서 자신을 태우며 주님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빛나간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